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5월 12일(주일) 제1491호

34번째 러브소나타 효고!

5월 15~16일 '회복' 주제로 고베 문화홀 대홀
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34번째 러브소나타 효고가 '회복'을 주제로 15일(수)과 16일(목)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울려 퍼진다. 러브소나타 효고의 포문은 5월 15일(수) 오전 세미나가 연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타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몽골 키즈홈 서포터팀 대표)가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가스펠나이트가 진행된다. 스즈키 마사야 전도사(메구미교회), 청소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웅기장이, LOVE OBI, 잇빠 재팬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5월 16일(목) 오전에는 고베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에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이 인용 장로(당회서기), 가네코 미치히토 목사(일본 참의원, 사회복지법인 '굿사마리안' 이사장)가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메인 집회는 오후 7시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개그우먼 조혜련, 가수 범키, 팝페라 가수 신델라,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가스펠보컬밴드 CRUX, Lalo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러브소나타 효고 참가자들은 여권, 상비약, 메모 수첩(여권번호, 연락처 등 기록) 등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러브소나타 본부에서 나눠주는 명찰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행사장 출입증),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상의 단체복 티셔츠, 하의 점령 또는 군청색 계열 바지를 입어야 한다.

일본 효고현은 간사이 지방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다. 5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사카, 교토와 함께 일본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히메지성, 롯코산, 아카시 대교, 다케다성, 아리마 온천 등의 명소가 있다.

문의: 02-570-741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 참가자들.

차세대 가정의 달 행사

12일 놀이기구 설치, 19일 교사 격려 및 축복

차세대사역본부에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5월 12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동빙고 근린공원에 바이킹, 에어바운스, 우주비행선, 기차 등, 양재온누리교회 지상주차장에 에어바운스, 도교교육관에 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5월 19일(일)에는 '교사주일' 행사를 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서별(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과외웨이브)로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5월 5일(일) 어린이주일에는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서별로 간식을 나눠줬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는 5월 4일(토) 본당에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했다.

/ 홍하영 기자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인생네켓'

5월 13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드디어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인생네켓'이 막 오른다. 5월 13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신양생활을 쉬고 있는 2030세대 자녀들이 대상이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인생네켓'은 식사 및 나눔, 환영 영상 및 공연, 메시지, 결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버 박위, 가수 범

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야기를 나누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요청자(부모)들은 지난 4월 22일(월)과 29일(월)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에 참여했다. 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고, 여성민 목사와 김영애 권사가 강의했다.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

6월 12~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옆드림'을 주제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막 오른다. 6월 12일(수)과 13일(목)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각 캠퍼스 성도들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14일(금)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전 캠퍼스가 모여 함께 연합기도회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행사가 이어진다.

6월 12일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를 구하는 옆드림', 13일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중보를 위한 옆드림', 14일 이한영 부총장(아신대) '예배를 향한 옆드림'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2024 마리아행전 '옆드림' 참가신청은 5월 11일(토)과 12일(일) 주일예배와 수요일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

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서와 함께 회비 2만 원을 내고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

서빙고(02-3215-3667, 3201)

양재(02-570-7277)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5월 비전헌금,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후원

5월 11일(토)과 12일(일)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은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를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전 세계 222개국 5천여 명의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종종 어린아이를 세우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 사회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당시에는 어른들에게 종속된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력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방해물이나 혹은 무익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적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 곧 자기중심적인 모습, 연약함, 경험이 부족함,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좁은 것들을 가리켜 교훈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 성인이 되어 가면서 점점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의심 없는 믿음’을 닮아야 합니다(3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모든 약속과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형성됩니다. 어떤 사회든 아주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

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심이 없어서 믿음이 곧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을 모태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조직이 흠 없고 무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억압적인 권위를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의심 없는 믿음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개개인이 주체로 나서서 자유를 선포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이성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하고 의심 없는 믿음 대신 비판적인 이성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버리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 이طم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의심이란 나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 언제나 의심할 때였습니다. <약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오직 의심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의심 없이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선물을 준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 자체가 의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요구하는 것이 의존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을 의심이라는 말로 바꿔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조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대조

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확신한 것처럼, 신자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배욕 없는 섬김

둘째, ‘지배욕 없는 섬김’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이라는 말씀을 때로 이해하기 힘듭니다(4절). 어린아이들에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종종 다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욕, 지배욕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지배욕이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학령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유아 정도의 연령입니다. 그 연령의 아이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자신을 높이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이 상태를 ‘자기를 낮추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왕은 섬기는 종입니다. 그에게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큰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지배욕이 아닌 섬김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막 9:35).

이 말씀은 사회에서 성공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신 분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지배욕이 아닌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

셋째,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을 닮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셨고, 나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돌봄 대상으로 여기며 잘 보살피라고 교육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영접 하는 것’이라는 말씀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이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없는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요, 내가 왕이 되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지배욕이 아닌 섬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복 잡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나 허리를 먼저 숙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십니다. 피조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메시지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조지 맥도널드의 설교 중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운 분이시다. 어린아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을 영접해야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지배욕이 아닌 섬김,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영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

세계관은 이야기(메타 내러티브)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현대 사회는 여러 이야기가 혼재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성경적 이야기를 삶의 축으로 삼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삶으로 증언해야 하는 온누리세계관학교 스태프들에게 명료한 성경적 세계관 확립은 너무나도 중요했다. 2018년 성경적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작가와의 만남’과 ‘북클럽’에서 스태프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 2019년에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심도 있게 공부했다. 장경철 목사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장경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험이란 비존재였던 인간을 창조한 것이며, 그 인간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이 갈망하는 존재로 불러냈다”면서 인간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의 고통을 지적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순적인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악하게 행동한다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혼들이 악해질 때 상대방을 해치려 할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생겨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악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료,

피조물과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인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받는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쓴맛이 나는 약’으로 활용하시기도 한다. 이 경우를 구약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사무엘하> 7장 14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 C.S. 루이스는 이것을 잘못이나 죄의 가면을 쓴 악으로 표현했다(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선택받은 자신들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고통이 그 가면을 벗긴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고 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며,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인 진정한 자아의 회복, 즉 C.S. 루이스 고유의 개념인 ‘자유의지’로 ‘자아양도’를 하게 하는 고통의 심오한 효력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스태프가 북콘서트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북클럽을 통해 이해해 나갔다. 북클럽에서 나눌 때는 삶에서 얻은 간증을 기반으로 했기에 이해가 쉬웠다.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아양도’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얻는 과정을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부분 인간들은 수 세기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찬탈하여 확고 불변하게 그 뜻을 무시하게 되어버린 욕망의 체계 전체를 물려받았다. 그 결과 다른 인간들에게 높임을 받아 얻는 만족감과 자신의 신체 유기체와 유전형질에서 나오는 욕구를 통해 양분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양분의 도움 없이 순전한 의지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창조 때 받은 자기 본래의 선한 힘)으로만 행동할 때 우리는 창조의 협력자 내지는 살아있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원죄의) 마법을 푸는 힘을 지닌 역(逆)주문으로써 아담이 후손들에게 걸어 놓은 반창조적인 마법을 깨뜨릴 수 있다.”

이것을 타락한 자아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 가운데 선택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C.S. 루이스는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C.S. 루이스에게는 이 책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자아양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아양도는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6개월 된 신생아를 기르는 딸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나요? 신문에 보면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들이 만족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후회가 많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인 아기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나 아기는 성장해야 한다. 아기가 자라면서 고집을 피울 때는 엄마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아이는 여러 가지 실패 경험 속에서 생각이 성장하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야 한다. 그 과정을 거쳐 선과 악을 분별해 낼 수 있을 때 아이는 엄마와 듀엣을 부를 것이다.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같은 멜로디를 읊조리는 화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비취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자아’를 우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결과를 깨닫고 오라고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리를 깨닫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묶을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신다.



박은미 성도
(서초A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뿌린 대로 거두는 대학 교육

지난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전국의 많은 대학 캠퍼스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가자 연대 캠프’가 세워지고 유대인 학생들이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투자 받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대학과의 학문적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 시위대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번 봉기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소위 ‘탈식민지화’ 또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종식’과 같은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성향의 학생들은 이슬람 테러리즘과 그리 미묘하지 않게 연관된 경우 등 시위 대열에 뛰어든 오랜 역사가 있다. 이 현실 일부에는 적어도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해 온 ‘젊은이들에 대한 숭배’가 있다. ‘젊은이들이 국가의 양심이며,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항상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미국의 민주사회주의 운동가의 글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역사에 있어 좋은 법칙은 지배 계급의 편을 들면서 학생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다. 모든 시대, 어떤 사안에 대

해서도 언제나 그렇다.”

역사를 이렇게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사관은 무엇보다 지배 계급에 대항하는 학생 운동이 독일의 ‘나치 운동’과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활발히 주도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캠퍼스 시위의 경우 지배 계급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시위대에 대한 학교 관리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노아 로스만은 <내셔널 리뷰> 기고에서 엘리트 대학에서 특권을 누리고 신탁 기금을 받는 이들이 캠퍼스에서 야영하는 게 억압받는 자들의 봉기로 보기 어렵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더 적절한 설명은 젊은이들이 순진하고 쉽게 조종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동주의의 아이러니나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순진함과 관심받고 싶은 갈증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세대도 전 세계를 향해 미덕을 과시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강력한 욕망은 중독성이 강하다. 조이 폴먼은 이를 “(과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셀마-몽고메리 행진에 대한 시기심”이라 불렀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왜 학교에 시위

를 벌이고 테러를 지지하는지 잘 모르는 이 학생들은 교육의 목표가 지혜가 아닌 행동주의에 있는 대학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대학이 이러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 괴물들을 상대해야만 한다.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라는 생각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 진보적인 비전을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가 항상 좌 편향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오랫동안 서구 고등 교육을 지배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최근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한 사립 기독교 대학의 총장은 학부모들에게 그 학교 학생들이 현대 정치에 대해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을 가질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무엇인지, 인간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국가의 역할이나 목적, 기능에 대한 역사상 최고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캠퍼스 생활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부분 정확하다고 믿을 만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학은 기독교인 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하곤 한다.

T.S. 엘리엇은 모든 교육 철학은 인간 됨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한다고 썼다. 많은 고등 교육이 교육의 중심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보다 앞서간 위대한 지성들이 이해하고 전수한 대로 ‘지성을 훈련하고, 고결한 삶을 가꾸는 것’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비전은 진리이시며, 그 명령과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캠퍼스에서 보는 것은 행동주의가 교육을 대체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다. 이 학교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수확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크리스천들이 참교육을 되찾을 진정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기독교 신앙과 문화, 신학, 변증론 전문 강사),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업스트림 팟캐스트 호스트,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WORLD,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서밋 미니스트리 등에 정기 기고) 원문: breakpoint(20240501)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

하늘을 향한 새로운 향해!

영종온누리교회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영종온누리교회가 지난 5월 5일(일)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지난해 5월 ‘하늘을 향한 새로운 향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립한 국내 11번째 캠퍼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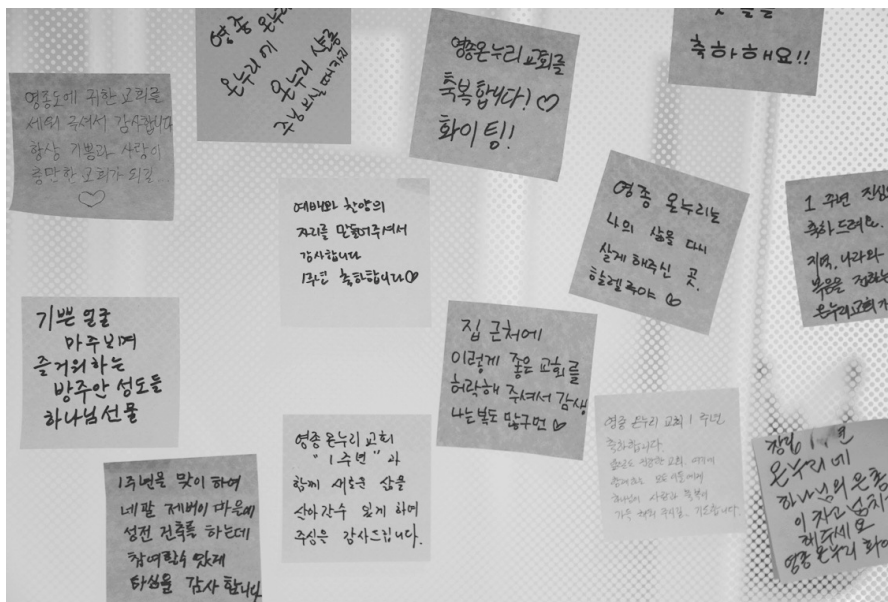
영종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향하여 향해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멋진 향해를 이어갈 것이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벌써 1년.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영종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목소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부흥’이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창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교회인데 매주 새가족들이 찾아온다. 서인택 팀장(새가족통합팀)을 비롯한 새가족통합팀원들이 매주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따뜻한 눈빛과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로 섬기고 있다.

“매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새가족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잠시 떠났던 성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특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하는 성도들의 ‘축하 메시지’.

히 젊은 부부 가정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자녀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영종온누리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새가족들이 온누리교회를 잘 알아가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다음세대의 성장’이다. 김동은 교사(꿈이자라는 땅)는 영종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무

엇보다 차세대들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진 게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에는 교회에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던 아이들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말씀 암송도 꾸준히 하고, 성경 목록기를 외우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교회 창립 때보다 차세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영적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영종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들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고,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차세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받은 세 번째 은혜는 ‘선교’다. 임성호, 한명자 선교사(베트남)는 영종온누리교회 결연 선교사다.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다. 그리고 영종온누리교회와 함께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8월 영종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베트남에 와서 함께 사역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며, 서로를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써 기대가 큼니다.

영종도에 귀한 온누리교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1년 만에 교회가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새삼 느꼈습니다. 영종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당)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종온누리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해주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종온누리교회를 건교하게 세워가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종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칼럼

선교사들을 섬기는 영종 ‘M하우스’



제치윤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영종온누리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생각하지 못한 곳에 또 하나의 캠퍼스가 개척되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한 가정의 헌신과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선물과 같이 주어졌다.

2022년 10월 2일 온누리교회 창립주일, 영종온누리교회는 영종하늘도시의 한 상가에서 첫 개척예배를 드렸다.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서빙고, 부천, 인천온누리교회를 출석하던 몇 가정과 개척예배를 드린다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광고만 듣고 영종도로 집을 옮긴 성도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

였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라인예배만 드려왔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성도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영종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그 자체만으로 ‘복음의 나팔’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다(요 1:12~13).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선물로 얻은 영종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입당을 준비하며 예배와 기도예배에 힘을 쏟았다. 개척예배와 함께 시작된 ‘건축현장기도회’는 2023년 5월 교회 입당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교회 건축 현장 옆 공원에 모여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눈이 오고 추운 날에는 두 손에 핫팩을 쥐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아름다운 교회 입당보다 앞서 2023년 1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게스트하우스 ‘M하우스’로 먼저 열매 맺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드나드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잠시 머무는 선교사님을 위해 2000선교본부와 영종온누리교회가 협력해서 영종도에 선교사 숙소 ‘M하우스’를 마련했다. 영종하늘도시 신축 아파트 중에 방 3개 거실 1개인 33평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다. 내부에 들어갈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광고를 냈는데, 단 2주 만에 모든 전자제품과 가구, 집기류 일체가 헌물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도 한 가정의 게스트하우스 청소와 관리, 헌물 등으로 헌신했고, 지금은 팀을 이뤄 M하우스를 이용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고 있다.

중남미 나카라과를 섬기는 김수선 선교사님(TIM)을 첫 게스트로 현재까지 많은 선교사님이 M하우스를 편하게 이용하고 계신다. M하우스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셔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숙소가 위치한 곳

앞으로 송산과 바다뷰가 펼쳐져서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의 회복,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숙소를 이용한 한 선교사님이 “M하우스가 너무 좋아서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영종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확인한 지금, 또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두 번째 ‘M2하우스’가 운서역 앞 오피스텔(원룸)에 준비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었다.

인천은 140여 년 전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복음의 관문도시’였다. 영종도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의 ‘허브도시’가 되었다. 복음의 유통이 시작되는 복음 전파의 출발지다.

영종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과 ‘하늘을 향한 새로운 향해’라는 비전을 붙잡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더욱 힘차게 복음의 향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일’ 하는 선교사 키우는 ‘어!벤처스’

어!벤처스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비전



최진우 팀장
(사회선교본부 어!벤처스팀)

사회선교본부 ‘어!벤처스’ (이하 어!벤처스)는 청년 창업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르도록 멘토링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 기업가들의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한다.

어!벤처스는 매년 청년벤처 창업대회를 개최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약 6개월 동안은 멘토 및 알럼나이(Alumni, 졸업생, 동문)의 교육과 네트워킹, 대회 기획 및 준비를 한다. 하반기 약 6개월 동안은 사전설명회, 참가기업 신청 및 선발, 오리엔테이션, 팀멘토와 전문멘토의 멘토링, 워크숍을 거쳐 12월에 최종결선을 통해 시상하고, 1년 동안 이야기를 스토리북 제작으로 과정을 마무리한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Christian CEO Leadership School’ 장학생 선발 특전, 해외 크리스천 벤처대회 출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유수의 액셀러레이터(AC, 초기기업 보육기관)나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벤처스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무엇보다 어!벤처스 대회의 핵심은 대회 기간 중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멘토들의 멘토링이다. 어!벤처스의 멘토들은 기업가, 기업임원, 벤처투자자, 컨설턴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크리스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이 최종 선발된 12개 팀에 팀별로 4명 내외의 멘토로 지정되어 공동 또는 개별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팀멘토링을 하고, 그 외에도 각 팀의 요청에 따라 30명 내외의 전문멘토들이 이슈별로 도움을 준다.

어!벤처스는 창업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큰 에너지를 쏟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근육과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그 과정에서 사업 방향을 바꾸도록 조언하거나 창업보다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가이드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수상하지 못한 기업도 무한한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기에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공감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멘토들과 멘티기업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 따뜻한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수시로 마련한다.

또한 참가기업과 알럼나이들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Faith & Work School’에 참여해서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 성경이 일, 성공,



“어!벤처스는 ‘성공 파트너’로서 돕는 자의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의 섬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돈, 관계 등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일터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어!벤처스를 국내 최고의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CNTTech)와 공동주관하게 되면서 참가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 기업, 투자자들이 모여 뜻을 모아 설립한 ‘Praxis Lab’,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의 크리스천 액셀러레이터, 멘토링 그룹, 벤처투자자들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 기관 및 단체들과 사업 현장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선교적 관점의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활발한 인적, 물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어!벤처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어!벤처스의 사명

어!벤처스는 2015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크리스천 CEO 포럼’의 주관으로 ‘제1회 러빙U청년벤처대회(대회장 정진호 장로)’를 개최하였다. 이듬해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로 그 이름을 바꾸고 제2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FWIA(Faith and Work Institute Asia)’와 공동주관하게 되었고, 그 이후 더웬스인베스트먼트 등이 주축이 되어 후원사를 확대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면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021년 제2대 대회장으로 강상훈 장로가 취임한 이후 올해 2024년 제10회 대회를 맞는다. 어!벤처스는 그동안 업계에서 명망과 신뢰가 높아져 상당히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앞다투어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올해는 어!벤처스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사역의 원년으로 삼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 온누리교회가 헌신해서 재정과 조직으로 마

중물 역할과 후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준 덕분에 어!벤처스가 기업들의 활동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 군대 전사들을 훈련시켜 전장으로 보내는 기지모씨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어!벤처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반드시 크리스천 기업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창업자나 주요 팀원 중 최소 한 명이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내세워 왔다. 그래서 종종 회사의 대표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임직원의 신청으로 벤처창업대회에 참가했다가 열떨 결에 대회의 모든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숙한 멘토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다. 작년 대회에서는 어느 참가자가 결선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피칭 비중을 줄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상당 부분을 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간증에 할애한 일이 있었다. 그날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진심 담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어!벤처스가 양육의 사명뿐 아니라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는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해서 모두가 놀랐다.

어!벤처스의 비전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일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일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더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중에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우리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

낄 수 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일의 환경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실패할 때가 많고, 일의 즐거움을 쉽게 잃어버린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일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벤처스는 참여자들 모두, 즉 참가기업들뿐 아니라 멘토들, 기획위원, 사무국, 실행팀원 모두가 각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신실한 두 종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3)라고 한 칭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결과에 있어서 생산성 있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은사 활용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야 하고(‘잘 하였도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착하고), 동기에 있어서 누구에게 충성하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충성된).

어!벤처스는 창업기업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동기와 방법과 결과에서 탁월함을 보이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벤처스의 비전이다.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

창업가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은 단어가 ‘성공’ 일 것이다. 어!벤처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이라고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성공과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어불성설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뭔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다면 그러한 거짓 속삭임을 이기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을 실행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어!벤처스는 ‘성공 파트너’로서 돕는 자의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의 섬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업 현장에 일하는 선교사를 파견해서 생명을 전하고, 실현하는 일을 계속 그리고 잘하기를 기대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벧전 3:19)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난제 구절에 해당한다. 이 말씀의 앞절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음부(옥)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사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측면도 있다.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고백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구절의 공인된 사도신경 원문은 “장사 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다.

많은 신학자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몇 가지 주요한 관점의

해석들을 살펴보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

첫 번째 해석은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영들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영으로 선재하여 죄인들에게 전도하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지옥에 내려갔다는 의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많은 신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본문의 문맥과 자연스럽지는 않다.

둘째,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전파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닌 제한된 자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었기에 홍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파한 것인데, 여기서 선포는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을 전한 거라고 주장한다.

셋째,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중간 시기에 죽은 사람의 세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주장이다. 예수의 육체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살아나 시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모든 우주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제공은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귀중한 진리를 뒷받침해 준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그늘에 들어갈 틈도 없이 세상에서 죽는 즉시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옥(음부)에 내려갔다는 사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둘째,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보편적 승리를 말해준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았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다. 셋째,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진리이다.

따라서 ‘예수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은 매우 난해하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이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최근 검진을 받았는데 난소에 종양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 CT와 MRI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건강과 검사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난소에 있는 종양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동생이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아서 걷는 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의 무릎도 속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걷는 게 불편하다 보니 일을 할 때도, 일상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이후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동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종종 성경책을 읽곤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동생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5월 13~19일

〈열왕기상〉 16:15~18:46



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하자.

▶반란을 일으킨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북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백성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는다. 오므리가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어 7일 천하가 막을 내린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을 건축한 이후 사마리아라고 칭하고, 북이스라엘 수도로 삼는다.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헛된 우상을 널리 퍼뜨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오므리가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된다. 아합은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다.

묵상포인트 1: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바뀐다.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를 세운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기는 등 북이스라엘 세력 확장에 기여했다. 그럼

묵상포인트 2: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신다. 엘리야의 사역은 가뭄 선포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라고 예언한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릇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다.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사르밧으로 옮긴다.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공계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인은 기근 때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아이가 살아나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한다.

묵상포인트 3:

갈멜 산에서 참신과 가짜 신이 확실하게 가려진다. 우상은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섬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가뭄을 선언한 지 3년 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신다.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과 그 집안을 질책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명 및 백성이 갈멜 산으로 모이고, 엘리야는 백성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안에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몸을 해하며 바알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다. 반면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근 시내에서 죽인 이후,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큰비가 내리고 기근이 끝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강력한 왕권으로 부와 명예를 누린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 받은 평가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박수를 더 갈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릇 시내로 보내셔서 기근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신 은혜의 사건을 함께 나누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 ▶응답하지 않는 가짜 신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자. 그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자. ▶내가 엘리야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일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혹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듯이 어딘가에 숨어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배려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손에 잡히도록 드러내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뜻이 가장 확실하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다. 수많은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

둘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

심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고백이다. 왜 그럴까? 선교 현장에서는 나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선교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내기 때문이다.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던 어느 청년의 고백이 기억에 남는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낸다면 때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

고 느끼게 될 줄로 확신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김한국 목사
(인천WEB대학청년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만들어 가신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다윗을 통해 왕국을 건설하시

에 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인 아론 아홉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많은 청년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가 참 어렵지만, 선교 현장을 가면 하나님의 일하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사이의 깊은 우정

사랑에는 친밀감, 우정,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 열정이 차오르는 친밀감도 사랑이고, 감정적으로는 식었다고 해도 헌신된 측면이 강조된 것 또한 사랑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랑의 우정적인 요소다. 가트만(Gottman)에 의하면, 부부가 친밀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부 사이의 깊은 우정’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의 친밀감과 연결감을 강화하는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부 사이에도 필요하다. 부부의 사랑에 포함되어있는 우정적인 면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

부부의 우정적인 연결감을 갈아먹는 바쁜 활동이 있다면 우선 멈추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삶이 바빠지면 부부만이 누렸던 소소한 즐거운 활동을 멈추기도 한다. 함께 한적하게 걸었던 산책 시간을 줄이거나 멈추기도 한다. 정기적인 문화 활동 횟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가정과 직장의 일은 갈수록 늘어간다. 자연스럽게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부부의 시간을 의도하지 않게 점점 다른 것에 양보하기 시작한다. 어느 틈에 부부만의 시간을 바쁜 일상이 갈아먹기 시작한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부부는 갈수록 자신들만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낀다. 어떤 것들이 부부만의 시간을 갈아먹는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조금씩 양보했던 부부의 시간은 세

월이 갈수록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부는 우정적인 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해야 한다.

부부의 시간이 다른 바쁜 일상에 의해 갈아먹히면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도 한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겠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기하고 방치하면 금세 메달라지는 게 부부 관계다. 아름다운 정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원은 한 철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금세 삭막해진다. 부부의 친밀함도 서로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면 금세 삭막해질 수 있다. 힘들고 에너지가 소모되더라도 노력하면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부부가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약속한다. 일주일 또는 매월 단위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하고 지키고자 한다. 그런데 일상에서 치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의도하지 않게 부부의 약속이 우선순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부가 우정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서로 갈등을 잘 조절하고,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충분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동안 묵혀뒀던 갈등을 처리하느라 바쁜

부부도 있고, 서로 친밀감을 더 세워가는 부부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우정적인 친밀감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부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 암묵적으로 밀어냈던 부부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시간을 가지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스트레스 없이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즐거워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만약 함께 즐거워하고, 재미를 경험하는 활동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함께 했던 재미있는 활동이 있었는데, 바쁜 일상에서 사장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한다.

부부가 즐거움을 경험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함께 산책을 즐기는 부부가 있다. 천천히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부가 같은 스포츠 활동도 한다. 신앙이 깊은 부부들은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한다. 어떤 부부는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교대로 암송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기도 한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연결감과 하나됨이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자신들을 연결해줬던 부부만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만일 현재 서로에게 불만이 차있고, 친밀감이 냉랭해졌다면 함께 즐거움을 경험했던 활동을 회복시켜야 한다.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쌓

여 있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 같은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격언이 있다. 서로 볼 수 있는 시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더욱 감정적인 친밀감을 키워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먹해지는 관계가 되어서 감정의 온도가 식어간다. 그래서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즐거운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록 다음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막는 방해물들도 처리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이전보다 증대됐다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마음을 전환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스트레스받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다. 자신은 배우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사랑의 우정적인 면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첫 마음 기억하는 목회자

김은혜 목사
(도곡 차세대)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수식을 앞두고 이제까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며,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섬기던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사람을 감당할 사랑, 사역을 감당할 능력, 자신을 감당할 절제를 지닌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파송기도를 해주셨던 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던 그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의 기도가 미치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인도하신 영혼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전하는 목회자

김태광 목사
(SNS청년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가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 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질문들은 온통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만 가득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음세대, 죄의 길로 빠져가는 세상,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와 함께 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자”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

오현교 목사
(Pole2대학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CGN의 슬로건을 처음 봤을 때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다가가고, 한계를 넘어 더 가까이 다가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 목사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한 영혼을 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주저 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대’라는 이 한마디를 위해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성실하게 섬기는 목회자

이진기 목사
(허브대학부)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회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마음으로 그 꿈이 흔들리기도 했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저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 애정 어린 사랑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딤후 2:15)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와 성도님,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목회자

장광석 목사
(부천 차세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든든한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차세대 선생님들, 아이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저 혼자 힘으로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위로하는 목회자

정연상 목사
(서빙고 차세대)

목사 안수를 앞두고 노회 면접에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여러 목사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대답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목사 안수를 통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잠언> 30장 8절을 기억하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목회자

진선미 목사
(서빙고 차세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는 목회자의 직분이 제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의 종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목자, 예수님의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겸손한 목회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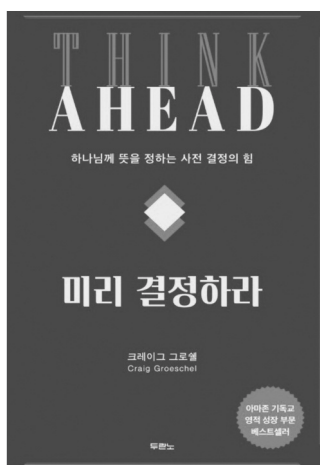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최재령 목사
(열반인온누리교회)

인생에 여러 대소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이번 목사안수식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다 괜찮을 것 같았던 마음이 여기까지 흘렀습니다. 조부와 부친에 이어서 부족한 저까지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를 견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가족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란노 신간

하나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방법!



<미리 결정하라>
크레이그 그로셸 저 | 두란노 |
20,000원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곤 한다. 그런데 어떤 결정은 후회할 때가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되지 않는다.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의 저서 <미리 결정하라>는 성경 말씀과 개인적 경험, 인간 행동 연구 등을 바탕으로 유익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도들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후회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미리 결정하라>에서는 ‘7가지 사전결정의 원칙’을 소개한다.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가 그것이다. 반복되는 후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세상의 수많은 결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 4월 22일(월) 지구 온도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후위기기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설치됐다. 이날 시계에 적힌 시간은 5년 91일이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 집중 호우, 가뭄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해양 환경의 변화로 어획량 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 절반 이상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더 끔찍하다. 폭염은 8배 이상 증가하고, 집중 호우와 가뭄이 2배 이상 증가한다. 기온 급강상, 폭설 등 기후 재난이 될 확률도 높다.

빙상과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토지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인간의 건강 악화,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기후위기기계의 시간은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의 정보를 반영해서 업데이트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민공원, 대전한빛수목원, 전주에너지센터, 창원용지호수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후위기기계가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나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CGN 육아 힐링 솔루션 콘텐츠 ‘크리스천 슈퍼맘’

매주 금 OTT ‘풍당’, 월 오전 10시 20분 CGN TV

CGN 육아 힐링 솔루션 콘텐츠 ‘크리스천 슈퍼맘’이 지난 5월 3일(금) 기독교 OTT ‘풍당’에서 첫 선을 보였다. ‘크리스천 슈퍼맘’은 다양한 사례의 육아 VCR을 보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순예배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순장으로 육아 고수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부순장으로 사모이자 육아 9단 개그우먼 김효진 집사, 개그맨 이정규의 아내 박지현 집사가 셀리더로 출연한다. ‘따라 하는 기도’로 유명한 장재기 목사도 함께 한다. 총 7회분을 지난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 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TV에서도 방영한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



사진은 CGN 육아 힐링 솔루션 콘텐츠 ‘크리스천 슈퍼맘’ 출연자들.

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크리스천 슈퍼맘’이 그 역할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이 5월 26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토)까지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mod.oat)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에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캠핑, 게임 등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기입하면 된다. 후원금 기준은 km당 최소 1백 원 이상이다. 올해 달려라풍당은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걷고, 달리면

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가정 회복 캠페인이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캠페인 기간에 활동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금액만큼 CGN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5). 후원금은 전액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국내·외 라이선스에 쓰일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양재2000선교 비즈니스선교팀 ‘BAM 세미나’

5월 19일~6월 9일 매주 일 오후 4시 강의동 306호

양재2000선교 비즈니스선교팀에서 ‘BAM(Business As Mission)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양재온누리교회 강의동 306호에서 열린다. 비즈니스와 선교적 삶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하단 QR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이다니엘 사무총장, 임정택 대표, 박성진 교수, 진경도 대표, 유재철 선교사가 강연한다.

문의: 010-9908-0800



청춘클래스 8기 참가자 모집

6월 15일과 22일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청춘클래스 8기가 6월 15일(토)과 22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열린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연애하고 싶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5월 19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청춘클래스 8기에서는 최성민 목

사(온누리교회 대학청년본부장)가 강의하고, 김복옥 전도사의 간증 및 콘서트가 열린다. 6월 20일(목) 오후 9시에는 개그맨 조래훈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 김다애 기자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ECD 부모교실 운영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말라위 치린디메마을에 영유아 교육 기관 ‘Bright Future ECD’를 개원했다. 부모와 아이들의 총체적 교육을 위해 설립했다. 부모 교육 참여가 필수 입학 조건이다. 부모 교실에는 문해교실과 산수교실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학부모의 학습 수준에 따라 운영한다.

조이스(Joyce Singano, 35세) 자매는 “아이들의 학교와 부모 교실을 열어주신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화성M센터를 도와주십시오”

화성M센터를 도와주십시오. 지난달 화성M센터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성M센터 예배당과 예배 장비, 물품 등이 훼손돼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네팔공동체 지체들이 화재 복구 성금을 보내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성M센터가 화재의 아픔을 이기고 회복되도록,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010-9958-6532

계좌: 하나은행 726-910027-80104(화성온누리M센터)

양재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5월 19일 양재온누리교회 2부 예배 / 대상: 24년 2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강남A	김은실	차서영	신윤정	도곡	백현경	서초D	권민정	김현경	박성혜	장현석	최강규
김수정	김은실	최경인	김정은	박준은	이일순	권민정	이진희	김현진	박현정	장현정	표민지
김유선	이지숙	최운용	황호영	박준은	이일순	심예진	노희선	김혜원	최혜경	조현정	우지연
김진경	김하숙	홍현지	김주현	서경희	전선형	여민진	임선정	김희준	한우희		
박성섭	남세진			손창남	이진신	오정섭	박두병	박지혜	박성혜		
서진희	이귀용	강남D	김민희	송미희	유미경			신현진	조수영		
신성민	이정숙	김민희	왕인희	오유선	이일순	송파A	장동택	이원희	유승관		
우형준	윤원기	김호영	박진우	이병철	이정구	장동택	강승규	정경철	윤유나	갈렘	박상호
이정은	안정현	박주영	이연승	최영욱	윤 선	전민숙	박정혜	정민선	권인영	박상호	박상호
이현승	박용선	신유진	우정현	최상근	장정민			정희준	이병후		
이혜련	고지령	양병욱	서원석	홍현정	이수진	송파B	김다인			여호수아	강유선
정윤희	이동주	이수아	홍현정	이숙경	박상돈	김다인	나미경			강유선	김경아
홍지수	김영수	이지영	이숙경	이한우	박상돈	김빛나	장후선	하나	서민음	고효정	김태양
		장미은	김명숙	정진욱	이관섭	문혜자	최성학	서민음	박현규	권민재	함우석
		정태훈	오세광			이만호	윤건상	이선녀	명소연	김다솔	권혜령
		조희성	심규혁			전송이	고은경			김예중	이미경
						하선미	김해나	Bridge33+	김동진	김주훈	신영주
						한지오	서정명	박규채	김동진	김한결	성시철
								박수희	조성민	노예나	홍은경
								박영민	임인숙	노예나	정지현
								박희영	홍한아	박승정	박재상
								성문용	장민구	박진호	이용석
								안세준	이기춘	백경원	이승우
								이강은	유정순	원다솜	고미경
								이정일	박종민	유성하	김상철
								이철민	김현진	이성용	오형석
								정관서	송영봉	이예림	윤소영
										이재현	김진형
										이정환	박필수
										이지혜	홍영표
										임재필	정연웅
										정병준	신현식
										최유나	임수진
										최유나	이정애
										최윤정	이시영

이달의 시(詩)



/ 성주명 장로(여의도공동체)

매일, 매일이 ...
같은 날 같지만, 사실, 같은
날은 아니다.

유명한 강사들은 “몸을 날
려, 이것 해 보라!, 저것 해 보
라!”하며 목청을 올리고,
심리상담사들은 “삶을 무
리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대
로 하라”하며 나지막이 속삭
인다.

가끔은, 방문을 닫고, 외부
소음을 차단한 뒤, 크게 울고
싶다.
진정된 나(true self)를 만
나는 시간들 말이다.

현대인들은, 얼굴을 살피
고, 머리를 빗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쳐다보
지만,
내면세계의 땅이 갈라져있
음과 속사람의 정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삶이란 용서받고, 용서하
고, 그리고 위로부터 받은 사
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주
변에 나누고 품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배움은 비교적 쉽지만,
까칠한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
며 나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는 고열로 고통
중이기에 해열제가 필요하
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과
외공부를 몇 가지나 하고, 늦
게 집으로 오고,

엄마, 아빠들도 과열과 고
열 속에 아이들을 채근(採
根)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이
속이 쓰리다.

오월의 연(軟)초록이 좋다.
과열된 체온을 낮춰주고
몸을 식혀준다.

연(軟)초록은 시내가의 심
겨진 나뭇잎 색이다.
5월의 나무들은 물을 흠뻑
빨아들이며, 계절을 좇아 풍
성한 과실을 맺는다.

5월에는 잠시라도, 바쁜 일
손을 멈추고, 연(軟)초록을
보며,

나무그늘에서 쉬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
을 하셨는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가올, 아름답고
눈부신 천국이야기도 말이
다.

5월의 연(軟)초록! 그래서,
나는 5월이 좋다.

사랑부 교사 간증



/ 이진혜 성도(양재온누리교회)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식당 옆을 지나면 비
전홀B가 나온다. 사랑부 학생들이 매주 즐겁
게 예배드리는 곳이다. 한참 온라인으로 예배
를 드리던 때 한 친구가 꼭 비전홀B까지 와서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느끼고 돌아가곤 했다. 일주일동안 기다려 온
시간일 텐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예배
를 기다리는 그 친구의 고운 마음에 내 마음
도 몽클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에는 학령기 학생들로
구성된 사랑부 예배, 11시 30분에는 대학생부
터 청년들로 이루어진 예수사랑부가 예배를
드린다. 이제 예수사랑부 예배만 섬기게 된
나는 사랑부 학생들이 많이 보고 싶다. 그레
도 연령대에 맞는 예배와 공과공부, 학생들이
손뼉을 기다리는 캠프가 더욱 효율적으로 준
비될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독생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사
랑부를 섬기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러 온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부 학생들을 통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제로 체험했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부를 자라게

해주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한다.

매주 주일마다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에
서는 깊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이
런 거구나’ 를 느낀다. 성경공부와 손동작으
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는 목사님의 메시지
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긴다. 사랑부 친구들의
손에 들린 탬버린으로 그 어떤 고가의 악기가
부럽지 않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사랑부 학생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
고, 평안과 생명의 힘을 받고 돌아간다. 사랑
부 학생들이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
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용감하게 전하기를 기도한다.

보석보다 귀한 사랑부 학생들의 삶에 교사
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때로 내 힘으
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
나더라도, 내가 옮길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어
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랑부를 통해
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세상에 아름답게 흘
러가기를 소망한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참가자 간증



/ 김혜승 자매(여호수아청년부)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바
이 플라스틱’에 참가했다. 개인적으로 참 반
가운 캠페인이었다. 하나님이 값없이 창조하
신 자연 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나는 다음세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물
려주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실천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발생
하는 플라스틱을 따져보았다. 포장지와 일회
용 음료컵, 빨대, 음료 페트병, 배달용기 등 내
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플라스
틱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제야 “플라스
틱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오래 쓰고,
일회용 물건을 줄일까 고민해 보기로 했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불편했
고, 제한도 많았다. 스마트폰 조작 몇 번이면
집 앞까지 편하게 배달받을 수 있는 식재료를
동네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음식 포
장 직전에 “잠시만요, 여기 담아주세요”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미는 간간한 손님이어야 했
고, 바쁜 카페 직원에게 눈치를 보며 텀블러에

거룩한 불편함!

음료를 담아달라고 얘기해야 했다. 물건을 살
때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물건이 무
엇인지 비교하는 데 시간을 써야 했다. 그럼에
도 곳곳이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생필품으
로 골라 보고, 순예배에서도 되도록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김밥류를 추천하거나 다회용
기 배달음식점을 찾았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동역자를 곳곳에서 만나게 하셨다. 동역
자들과 함께 공동체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줄
이는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나누며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에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의
다음세대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큰
감동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플라스
틱 줄이기가 개인의 실천을 넘어 교회와 공동
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
을 ‘거룩한 불편함’으로 여기며 기꺼이 감당
하기를 소망한다.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정현빈, 부: 정회준, 모: 정민선

우리 부부는 2017년 온누리교회 목사님 주
례로 결혼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018년 가
을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찾아왔다. 당시 나
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상황이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돌 전까지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주일예배를 드렸다. 아이가 돌이 되고,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아세례를 신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19가 출현하면서 우리는 약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
진다”라는 말처럼,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는
미적지근해졌다.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탓이라는 핑계를 대며 포기했다. 그
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인 어
머니와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2022년부터
도곡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온누리교회
초등부 교사를 하였던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교회학교에 나가도록 강권하셨다. 현빈이가
유치부 7세 반에 들어갈 때 즈음 유아세례가
만 6세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만 5
세 7개월 현빈이도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었
다. 세례 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 부부는 새가

“부모부터 바로
서겠습니다”

족 교육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함께 수료했다.
그림자 성도로 예배만 참석하던 우리 부부가
유아세례를 준비하면서 좋은 양육자님을 만
나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즐거움을 누렸다.

유아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불안’과 ‘두려
움’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는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양육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
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 자녀가 뜻을
정하고 경건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죄의 자
리에서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모습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하셨던
말씀이 현빈이의 삶에 함께하기를 날마다 기
도할 것이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
혼으로 대할 것이다. 자녀에게 신앙이라는 위
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유아세례를 막연한 통
과의례로 생각했던 우리의 얕은 생각을 하나
님이 내려놓게 하셨다. 세상에 휩쓸려가던 우
리 가정을 회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

#AI #교회 미디어 #기독교 네트워크 #미디어 전략 #OTT #풍당

2024.6.3.(월) ~ 6.4.(화)

3일(월) 12:30~21:00 / 4일(화) 09:30~17:30

양재 The-K Hotel Seoul

온라인 사전등록비 안내

풍당네트워크 (교회/단체/신학생)	개인 참가자 (풍당 가입자)		
	슈퍼 얼리버드 (4/22-5/19)	얼리버드 (5/20-5/30)	현장 등록 및 비회원
4만 원 (4/22-5/30)	5만 원	6만 원	8만 원
*4+1 이벤트 (4인 등록 시, 1인 무료 등록!!)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fondantmc.com에서 확인하세요.
"풍당 네트워크"는 풍당에 가입한 교회/단체에게 드리는 멤버십입니다.

행사 문의 02-3275-9372

주최·주관 CGN fondant



6.3(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이재운 위임 목사
CGN 이사장
온누리교회



최진호 교수
미국 애오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도균 대표
Cloudflare
한국지사



사회: 박은지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AI문화경영연구소 소장

6.4(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선택강의

- 선택 1** 음향 Church Sound Like a Pro
교회음향 프로되기, 하루면 OK!
- 이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
- 선택 2** 촬영/중계기술(+실습)
프로들에게 배우는 촬영과 라이브 중계!
- CGN 제작기술실(촬영/중계)
- 선택 3** AI, 디자인, 풍당 플랫폼 활용
AI 실전편, 디자인, 풍당 200% 활용하기
-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

FMC24만의 혜택 세 가지!

- 1 <바울로부터>, <오십쇼>, <바이블북>, <풍당교회학교> 등 콘텐츠 워크북 무료 증정!
- 2 기독교콘텐츠, 테크, 굿즈, 구인구직 부스! 크리스천 업체들을 한 곳에~
- 3 참여 업체와 함께 준비한 푸짐한 추첨 경품!

FMC24